

살기 좋은 태안 건설을 위한 지역공동체 복원 전략 및 방향

Plan and Strategy to Restore a Regional Community
in order to Establish a Good Living in Taean

배 정환 (한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Abstract

Jeong-Hwan Bae

This research is to examine a psychological effect that are shown by the citizens in Tae-An after the Hebei Spirit incident. These effects are various and it includes the feeling of losing bond and trust from the regional community, personal conflicts, bad rumors and conflict between various groups, internal issues, and the anger toward the government. The research's goal is to examine these problems and to find the right treatment in order to restore a regional community. Also, the research will discuss how the restoration of regional community can help establishing a good living in Tae-An.

First, we will define what regional community is and list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Tae-An citizens after the incident. Then we will suggest some solutions on how to restore a regional community and present the model to operate this community. This will help to solve the problems and make Tae-an more suitable living place.

주제어: 지역공동체, 허베이 스피리트, 복원, 지역공헌

Key Words: regional community, Hebei Spirit, restoration, regional contribution

I. 서 론

우리 사회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한편으로 상당한 경제적 부를 축적하고 개인적으로도 높은 물질적 생활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산업화된 도시사회에서 사람들은 매우 개인주의적인 생활양식 속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나 사회적 규범을 무시한 채, 때로 심각한 사회공간적인 갈등과 소외를 경험하게 되었다. 또한 농어촌지역에서는 노인인구의 증가 및 젊은 계층의 이주 등 공동화 현상이 진행되었고 대면적 의사소통과 상호 협력에 기초하여 공유한 가치와 규범, 그리고 장소적 정체성을 형성하던 공동체적 지역사회 해체를 초래하게 되었다.

2007년 12월 7일 새벽에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쪽 10km 해상에서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삼성조선 소속의 대형크레인 선박과 충돌한 사고는 지역의 공동체의 해체를 가속화시키는 외부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현재 사고발생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태안바다는 주민들의 사활을 전 방제활동과 120여만 명의 자원봉사자 및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외관상으로는 어느 정도 제 빛을 회복했다. 그러나 아직도 갯벌과 도서지역, 일부 해안가에서는 유출된 기름이 여전히 발견되고 있으며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은 원유 성분들이 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해양생태계의 손상은 생태계의 손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회학자 Picou(Steve Picou)와 동료들은 엑손 발데즈호 기름유출 사고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코르도바 지역 사례를 연구하면서 자연자원에 의존하는 어촌사회가 사회·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Picou, Gill, & Cohen, 1997; Picou Marshall, & Gill, 2004).

이러한 환경생태적 요인의 손상은 태안의 자연적 환경에 의존하던 주민들의 어업활동, 서비스업 및 운수업 등의 다양한 경제적 활동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박재목, 2008). 또한 태안은 생계유지비나 성금 등의 자원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지역 및 개인 간에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는 과정 역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노진철, 2008). 더욱이 법정 소송이 장기화, 보상과정에서의 갈등 등은 사회적 연대감이 파괴하여 지역공동체의 복원이 더욱 더디어질 위험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허베이스피리트호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의 연대감 붕괴, 개인간 갈등, 악성루머나 집단간의 갈등, 내부분열, 지자체에 대한 불신, 정부정책에 대한 반감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태안주민들의 심리적 영향에 대한 범주를 살펴보고 이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복원에 대해 살펴보자 한다. 또한 이러한 지역공동체의 복원이 살기 좋은 태안을 건설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론적인 검토를 해볼 것이다.

우선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공동체의 개념적 정의와 이에 상응하여 피해를 당한 태안주민들의 심리적 현상을 개념적으로 정리하고 현재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지역공동체 형성 방안도출과 지역공동체의 운영에 대한 개념적 모델의 설정을 통해 향후 살기 좋은 태안을 만들 수 있는 시론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II. 지역공동체의 이론적 배경 및 태안주민들의 심리적 영향분석

1. 지역공동체 개념

공동체라는 용어는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동의 필요와 목적, 공동 가치나 선의 추구, 공유된 문화와 생활,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구체적 내용을 설정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의사소통 및 집합적 행동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공동체의 구성요소는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지만, 특히 중요한 요소는 공간적 측면이다. 인간의 삶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지역에 근거함으로써 안정성과 정체성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이 강조된다(최병두, 2006). 즉 전통적 의미에서 공동체는 구성원들의 생활공간 또는 장소성에 기초하여 이들 간의 대면 접촉을 통한 의사소통과 이해관계 또는 생활양식의 동질성에 대한 직접적 확인 등을 전제로 한다.

일반적으로 공동체란 구성원의 개별성보다 전체의 공동성을 전체로 한 개념으로, 개체적 자율성과 전체적 통합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 따라서 때로는 개인들이 상호의 존적인 관계의 체계를 통하여 그들의 일상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제한된 지리적 영역의 정주집합체로, 또 민족 혹은 학문공동체처럼 어떤 전통이나 관심을 공유한 사람들로 정의되기도 한다(조영달, 1997). 즉 일정한 지리적 영역을 배경으로 나타나는 공동체를 지역공동체로, 지리적 영역에 구애됨이 없이 정신적 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개념을 정신적 공동체로 표현되는데, D. E. Poplin(1985)은 이를 “the community”와 “community”로 구별하고 있다.

지역공동체는 흔히 지역사회라는 용어로 학자들에 의해 사용되어 왔는데, 마을·촌락·도시·거대도시 등 지역적 단위들을 대상으로 하여 일어나는 사회적 관계들 즉, 상호작용과 문화적 공유의 연대성을 가지는 집단이다. 한편 공동체는 포괄적 의미를 가진 개념으로 지리적 도는 특정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공동의 목적을 가진 정신적 공동체를 지칭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결과적으로 공동체라는 말은 그것이 사용되어 온 역사나 빈도에 비해 명확하게 개념화되어 있지 않다. 서구의 많은 사상가들이 이 개념을 정의하고자 시도하였지만 그러한 시도들은 각기 공동체의 한단면들만을 분석하였다며 볼 수 있다. 결국 현대에 들어와 공동체의 의미가 다양하게 이해되는 것은 이미 그 용어가 ‘보통명사’처럼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공동체라는 말을 누구나 널리 쓰고 있으나 그 말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대상이나 또는 그 말을 쓰는 계층에 따라서 그 뜻은 상반되게 받아들여지며, 똑같은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전혀 달리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김남선·김만희, 2000).

이러한 공동체의 의미의 다양성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신도시주의(new urbanism)와 창조적 도시론, 사회적 자본론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도시주의는 미국에서 대도시 근교에 거대한 개인주택 건설 붐에 조성, 개인용 호화승용차와 고속도로망의 확충, 거대한 대형 할인매장의 증가 등 개발화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개념이며 최근 등장한 창조적 도시론은 문화와 창조성을 결합시켜, 지역의 가능성을 새롭게 부각시키면서 도시의 빈곤, 교육, 노령화, 토지이용, 정보기술, 관료제, 리더십, 환경문제 등 다양한 지역의 문제를 창조적 해결방안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창조적 도시론의 개념은 지역공동체의 개념과는 상당한 거리를 가진다. 즉 창조적 도시는 이른바 ‘신경제’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기술-생산구조-노동시장에서의 최근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사실 세계화의 효과는 창조적 도시의 세계적 네트워크의 등장과 관련된다. 경쟁과 협력의 관계를 강조하는 창조적 도시의 개념은 상대적으로 고급 문화를 향유하고 이를 통해 경쟁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층이나 지역에게는 희망을 가져다주지만 또한 동시에 도시사회의 어두운 면을 무시한 채 불평등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Scott, 2006).

<표 1> 사회적 자본의 개념요소와 표현인자(지표)

| 개념요소 | 신뢰 | 참여 | 연계망 | 제도 및 규범 | 이타주의 |
|------|-------------------------|-------------------|-------------------------|-------------------|--------------------|
| 표현인자 | ✓ 가족간 신뢰 | ✓ 지역사회 행 사참여 | ✓ 공식 및 비 공식 단체 | ✓ 사회적 규범 인지 정도 | ✓ 자원봉사활동 지원체계 |
| | ✓ 상업적 거래 관계에서 신 뢰 | ✓ 지역사회 단 체 회원수 | ✓ 이웃의 범위 | ✓ 범법행위 신 공율 | ✓ 자원봉사활동 경험과 횟수 |
| | ✓ 공공정책에 대한 신뢰 | ✓ 공공기관 활 용수 | ✓ 필요시 지원 체계 구비정 도 | ✓ 청소년 선도 | ✓ 사후재산처분 방식 |
| | ✓ 신용불량자 발생률 | ✓ 지역사회 활 동 | ✓ 비상연락망 확보 | ✓ 범죄율 및 안전 체감도 | ✓ 장기기증의향 |
| | | | | | |
| 기능 | 공통기반확보 | 공유목표정립 | 이웃관계 유지 | 자원동원 및 안전망 | 공동이익 창출 |

출처 : 소진광, 2004.

최근의 또 하나의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이론으로 ‘사회적 자본’론을 들 수 있다. 사회적 자본론은 크게 두 가지 의미, 즉 개인들 간의 관계에 내재해 있으면서, 구체적인 행동과 규범에 영향을 미치는 원천으로 각 개인이 궁극적으로 그 결과를 수용하는 자원이라는 의미와 한 사회내의 보편적 신뢰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양한 집행행동의 문제를 용이하게 풀어나가고 사회적으로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을 제고시켜 다양한 정책 실현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전체적 용량이라는 의미를 가진다(이재열, 2006).

전자의 의미에서 이용어는 이미 1980년대부터 부르되외와 콜만 등에 의해 사용되었지만, 후자의 의미에서 이개념은 1995년 퍼트남(Putnam)이 “Bowling alone”이라는 논문이 발표된 이래 사회이론에서 핵심적 개념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으며, 또한 세계은행이 세계발전에서 ‘간과된 연계’(missing link)라고 칭할 정도로 세계적 발전 전략에서 중심적 주제가 되었다.

2. 지역공동체 운동과 유형

우리나라에서 공동체의 개념과 실천 사례는 고대사회까지 소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에 기반을 둔 공동체의 유형은 마을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마을공동체는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급격한 해체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성에 근거한 전통적 공동체는 급속하게 해체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나 최근 시민사회가 성숙되면서 민주화 및 자율성을 근거한 지역공동체가 점차 형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공동체운동들은 대부분 주거, 교육, 의료, 문화, 환경, 자치, 경제(생산 및 소비) 등 각 부문들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는 부문별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문별 공동체 운동이라고 할지라도 운동 주체의 소극성/적극성과 운동 대상의 국지성과 포괄성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공동체운동은 사회자본론의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유형의 자본 및 고동체 혁신과 관련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사회자본론은 좁은 의미의 사회적 자본 및 기존의 경제적 자본 외에도 문화적 자본을 인정하며, 또 다른 배경에서 생태적 자본 또는 자연자본이라는 개념도 사용하고 있다.

<표 2> 지역공동체 운영의 유형 구분

| 분야 \ 방식 | 소극적/국지적 | <-----> | 적극적/포괄적 |
|----------|----------|-----------|----------|
| 주거공동체 운동 | 세입자운동 | 아파트자주관리운동 | 공동체마을운동 |
| 환경공동체 운동 | 녹색아파트운동 | 생태마을운동 | 생태자치구운동 |
| 경제공동체 운동 | 녹색가게운동 | 생활협동조합운동 | 지역통화운동 |
| 문화공동체 운동 | 지역축제운동 | 대안학교운동 | 사이버공동체운동 |
| 자치공동체 운동 | 주민자치센터운동 | 지역자치운동 | 민회운동 |

자료 : 조명래, 2003.

부르뒤외(Bourdieu)에 의하면, 문화적 자본이란 이의 소유자에게 궁극적으로 사회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높은 문화적 지식을 의미하며, 자연자본이란 경제적 자본과 대체가능한 자연 상태의 생태계 보존 정도와 관련된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자본 개념들을 원용하여, 각 유형의 공동체 운동과 이에 따른 지역혁신 및 관련 자본의 유형을 관련지워볼 수 있다. 지역공동체 운동은 이러한 각 부문별 운동의 복합적 형태로 추진되며, 지역사회의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다양한 유형의 자본 축적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겠다(최병두, 2006).

<표 3> 공동체 운동의 주요 내용과 혁신 및 자본의 유형

| 분야 \ 방식 | 주요내용 | 혁신 및 자본의 유형 | 지역혁신의 요소 |
|---------|--|-------------|---------------------------|
| 사회공동체 | ✓ 주거에 기초한 생활공간 개선 ✓ 교육, 의료 등 생활서비스 수준향상 | 조직적혁신, 사회자본 | ✓ 네트워크와 신뢰관계 ✓ 사회적 서비스 |
| | ✓ 오염 없는 생태환경 조성 ✓ 자원절약형 생활환경 만들기 | | ✓ 자연복원, 오염통제 ✓ 에너지 효율성 |
| 생태공동체 | ✓ 지역고유 브랜드 만들기 ✓ 장소마케팅 활성화 | 환경적혁신, 자연자본 | ✓ 문화경제, 정보화 ✓ 사회간접자본 |
| 문화공동체 | ✓ 전통/고급 문화의 확산 ✓ 건축미관 및 마을 경관의 개선 | 문화적혁신, 문화자본 | ✓ 문화적 생활양식과 규범 ✓ 정체성 |

자료 : 최명두, 2006.

주 : 자치공동체 운동은 개별 부문 운동이라기보다 모든 공동체 운동의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외

3. 태안지역공동체의 심리적 영향 분석

본 절에서는 허베이시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재난에 대한 태안지역의 공동체 및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 또는 적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분석은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와 관련된 논문들에서 나타난 사례나 심리적 영향분석, 그리고 설문분석을 토대로 재난결과, 상황조건, 주민생활조건, 주민의식, 공동체 현황 등의 범주로 나누어 태안지역의 공동체가 재난에 적응 또는 대응하는 과정상에서 나타난 현상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재난결과는 재난으로 인한 태안 앞 바다의 심각한 오염과 사고에 대한 비효율적이고 산발적인 초기대응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상황조건은 바다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정부나 기관의 미온적인 대처, 경제적 제로섬게임의 상황에 대한 범주화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주민생활조건은 태안주민들의 일상생활의 제약, 피해 증빙과 관련된 내부분열, 책임소재에 대한 보상과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재난의 2차 파급효과와 내재화 부분으로 범주화 될 수 있을 것이며

주민인식에서는 건강상의 문제발생 및 감정과 스트레스 부분으로, 마지막으로 공동체 현황에서는 지역사회의 위기심화, 재난 후 지역사회의 변화 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표 4> 태안지역공동체의 재난 대응과정에서의 심리적 영향분석표

| 구분 | 주요내용 | 하위범주 | 대범주 |
|------------|--|---------------------------|----------------|
| 재난결과 |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태안 앞 바다의 심각한 오염 사고에 대한 비효율적이고 산별적인 초기대응 | 기름유출사고 초동대처실패 | 사고발생 재난발생 |
| 상황조건 | 바다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현실 지역경기 침체 | 어촌사회특성 경제적위기 | 상황 악화 요인 |
| | 세계적 경제위기 | 국가경제위기 | |
| | 정부나 기관의 미온적, 본질적 대처 실패 생계비 지급이나 방제작업 참여의 비형평성 | 유관기관의 비효율성 | |
| | 경제적 제로섬게임 상황 | 보상의 한계 | |
| | 해수욕장 개장, 예산절감 등을 위해 방제작업 조기종결 | 방제작업 조기종결 | |
| | 서해바다 인근 농수산물을 위협하다는 인식확산 악성루머 마을간 오해 등 의사소통 문제발생 | 악성루머에 의한 집단갈등 확산 | |
| | 대안적 일자리 창출 및 미흡한 지원 자원봉사자들의 혼신 | 외부지원 | |
| | 바다의 자정능력 | 자연정화능력 | |
| 주민생활 조건 | 바다를 활용한 일상생활의 제약 경제적 타격 | 사고 결과 사고 결과 | 재난의 2차 내재화 |
| | 피해 증빙서류 구비에 따른 보상 격차 가해회사와의 자매결연에 대한 찬반 여론 공동체의식과 시민의식 손상 상호간 대립관계 형성 가족 또는 이웃과의 불화 발생 생계유지비, 성금 등의 불로소득 분배에 관한 편집증적인 태도확산 | 내부분열 발생 공동체 해체확산 | |
| | 가해기업에 대한 분노 가중 | 책임소재에 대한 갈등 | |
| | 정부, 지자체에 대한 불신 가중 | 생활패턴변화 | |
| | 무기력한 일상 | 불확성증가 | |
| |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정확한 정보의 차단) | 학습된 무력감 증가 | |
| | 문제 해결의 곤란(유출사고 결과) 반복적인 상황설명에 대한 불만과 불신(연구자 측면) | 신체적 문제발생 | |
| | 두통, 감기, 면역력 저하, 골절 사고 등 | 건강이상 | |
| | 갈파래 증가, 꽂개 등 어획량 감소, 수온상승 등 | 생태계 악화 | |

| 구분 | 주요내용 | 하위범주 | 대범주 |
|-----------|--|---------------------|--|
| 주민의식 조건 | 감사성향(외부도움 등에 대한) 낙관성(회복에 대한 기대감) 과거에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 대인관계에 정형화 공동체 윤리의식에 대한 반성 | 개인적 성향의 변화 | 개인역량변화 주민인식의 변화 |
| | 음주 및 흡연의 증가 기물파손 등의 직접적 분노의 표출 | 정서표출 | |
| | 고통스러운 현실 도피 | 현실도피 | |
| | 외부의존성의 증가 | 의존적 행동 | |
| | 체념적 운명 수용 | 체념적 행동 | |
| | 자기노출에 의한 감정 정화 | 정서적 지원추구 | |
| | 정책보고회나 대책모임의 적극적 참여 대정부 혹은 기업 투쟁/소송참여 | 문제중심적/ 적극적 대처활동 | |
| 공동체 현황 조건 | 일상 및 환경 회복에 주력 | 수용/전념 대처행동 | 만성적 스트레스 장애 재난 후 성장 |
| | 무력감/절망감 경험 사회현실에 대한 편집적인 태도 확산 소원해진 이웃 및 가족관계 | 만성적인 심리적 부적응 | |
| | 수면/섭식 등 일상기능 이상 신체적 건강 손상(질병발생) 어린이 천식환자 증가 | 신체건강손실 | |
| | 지역간, 업종간 갈등심화 지역공동화 | 지역사회 위기심화 | |
| | 바다 및 환경의 소중함 인식 타인(자원봉사자)의 중요성 인식 이웃의 소중함 자각과 연대감 발달 | 자연과 사람에 대한 긍정적 신념확산 | |
| | 재난 초동대체의 중요성 인식과 준비자세 향상 | 재난에 대한 경각심 | |
| | 기능적인 지역산업 구조의 개발 가능성 모색 | 지역사회 발전 가능성 발견 | |
|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개입 등 변화시도 형성 | 복지개념의 확대 | |

주: 정리표는 다양한 논문의 내용을 검토하여 정리한 것이며 주된 프레임은 2009년 김교현 외 2인이 저술한 논문을 참고하여 수정하였음.

III. 지역공동체 복원 및 재형성 접근법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의 진전으로 붕괴되기 시작한 지역공동체 및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급격한 외부적 요인에 의해 붕괴된 태안지역공동체의 복원을 통해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보다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주요한 대안으로서 지역공동체 복원 및 재형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 복원 및 재형성 사업은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들을 검토하는 한편, 우리 사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유형의 공동체 운동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개념적 및 실천적 함의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태안지

역의 공동체 복원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의 복원 및 재형성을 위한 전략은 기본적으로 4가지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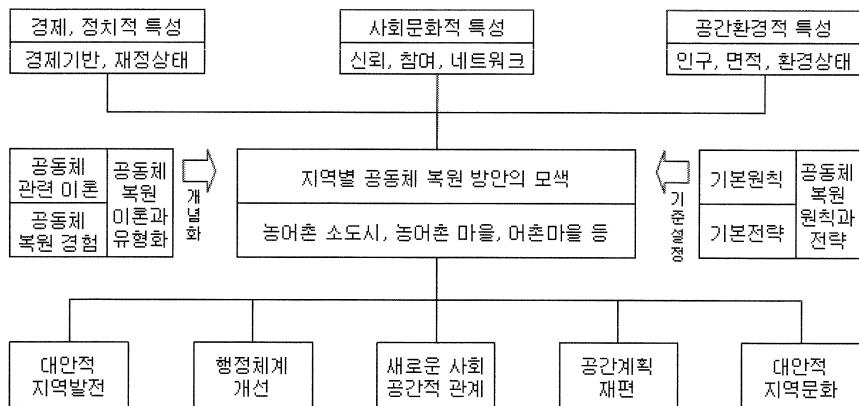
첫째, 지역공동체의 복원 및 재형성의 목적과 의의가 무엇인가? 둘째, 지역공동체 복원 과정에 누가 참여하고 주도할 것인가? 셋째,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해 어떠한 요소들이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인가? 넷째, 지역공동체 복원 작업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 추진할 것인가? 이러한 기본적인 접근전략은 해답은 물론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 형성 또는 복원을 위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러한 작업의 목적과 의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지역공동체를 위한 정부 정책이나 주민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지역공동체 복원의 근본 목적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거나 또는 왜곡된 방향으로 전개되어 실패한 사례들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많은 곳에서 발견될 수 있다.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외부적 요인에 의해 급격하게 붕괴된 공동체의 복원을 위해서도 지역공동체의 복원의 목적에 대한 주민들의 공동의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첫째, 지역공동체 복원은 지역사회에서 야기되거나 필요한 문제들의 해결책을 논하고 협의하기 위한 의사소통과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모임을 중심으로 지역거버넌스가 구성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조직을 통해 공동학습 및 자율적인 참여와 자치에 대한 신념,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지역공동체 복원 작업은 공론의 장에서 합의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에 주어져 있는 주요 자원들을 동원하는 내생적 발전을 기초로 해야 할 것이다.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위한 주요 자원의 자발적 동원체계는 지역공동체 복원과 재생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즉 지역공동체의 구축을 위하여 동원되는 자원은 단지 지역에 산재한 물리적 자원들이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자본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구성원간의 신뢰, 규범, 그리고 정서와 가치 등 무형적인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셋째, 획일적 성장개발전략을 배제하고 지역의 고유한 자연환경과 사회인문적 특성을 배양하고 지역 나름대로 특성과 가치가 존중되는 원칙의 정립과 실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큰 것이 가장 좋은 것, 지난 것들은 새것으로 대체되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에 매몰되어 전국이 동일한 형태의 발전 모델을 선택해 왔다. 따라서 지역의 정서와 가치를 무시한 비인간적인 획일성과 비장소적인 보편성을 배제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한 기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역공동체의 복원은 단지 구

성원들 간 공유된 이해관계의 실현 추구만으로 그 정당성을 획득하고 지속적인 사업을 전개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에서는 개방성과 보편적 가치로서 평등과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역공동체 복원과정의 참여자와 주도자의 문제이다. 현재까지 지역공동체 형성이나 복원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정부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관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은 단순히 혜택의 대상 또는 동원의 대상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주도의 사업들은 지역공동체 복원 및 재형성에 있어서 필연적인 실패를 가져올 개연성이 크다고 하겠다.

세 번째 전략으로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해 어떠한 요소를 고려해야 할 것인가에 문제로 지역공동체의 복원을 위하여 우선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지역의 경제정치적 특성, 사회문화적 특징, 그리고 공간환경적 특성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공동체 복원의 제반 특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조사된 제반특성은 지역별 공동체 복원 방안으로 구체화되어 해당 지역의 행정체계 개선, 공간계획의 재편, 새로운 사회공간적 관계의 구축, 그리고 대안적 지역발전으로 이어져 고유한 지역문화를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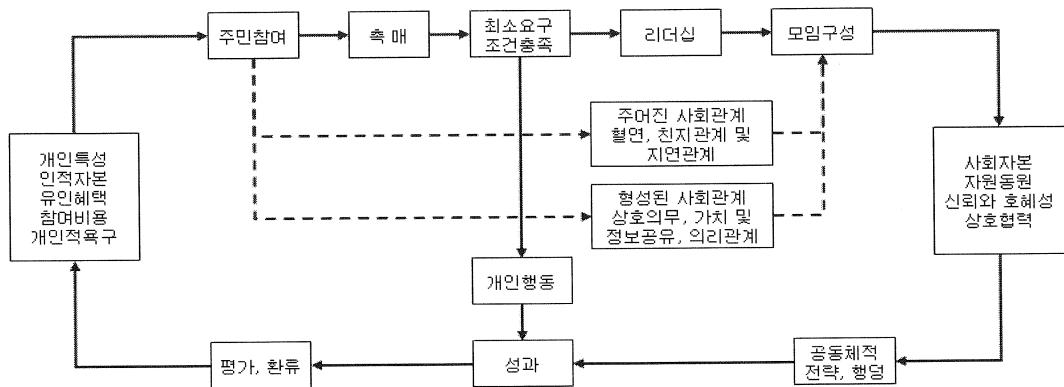
<그림 1> 지역별 공동체 복원 방안 모색을 위한 고려 요소들



마지막으로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한 실천 작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는 사회적 자본에 관한 이론적 개념에 근거하여 공동체적 실천과정의 모델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한 실천은 일단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이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특히, 태안지역의 많은 공동체들이 실제적으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공동체 복원을 위한 자발적 참여 동기를 가지기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정부나 공적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촉매 역할이 필요하다. 이러한 촉매역할이 개별 주민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공동체적 실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에 필요한 최소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주민들 간 신뢰를 바탕한 일정한 결사체가 형성되고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외형적인 실무조직이 구성되게 된다.

<그림 2> 사회적 자본 동원을 통한 공동체 복원 사업모델



자료 : 최병두, 2006.

IV. 살기 좋은 태안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본 연구에서 살펴본 지역공동체 복원 및 재형성에 대한 전략을 구체화하고 이를 통해 대형 기름유출사고를 경험한 태안군 주민들이 만들어갈 미래의 발판인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지역공동체의 복원과정과 더불어 함께 진행되어야 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간, 주민-지자체간, 주민-가해기업간 등 다양한 갈등이 상존하는 것에 대한 갈등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간의 연대감 회복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지역주민에 대한 관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갈등에 대한 상시적인 상담과 조정을 위한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갈등의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건강 및 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야 한다. 해양유류오염 등 기술적 재해가 남긴 주역주민간의 연대감 파괴와 범정소송의 장기화 및 보상의 지연으로 나타난 심리적 스트레스 등 정신적 측면과 방제작업 등으로 나타난 각종 알레르기, 어린이 천식환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료지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직접지원 방식과 지역병원, 지역대학 등과 연계한 간접지원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현재 주민들의 정부기관에 대한 불신이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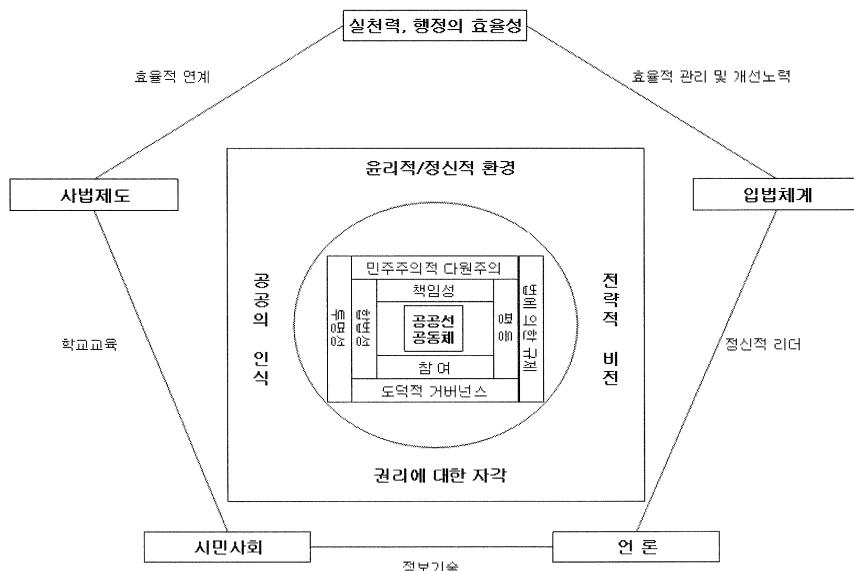
하는 상황에서는 지역대학, 지역병원 등과 연계된 간접지원방식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간접지원 방식으로 지역대학인 한서대학교에서 의료지원과 관련된 학과 등의 현장 실습¹⁾을 태안지역으로 유치하고 이를 자체 및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셋째, 민관파트너십 개선을 위해 민관협동대학(가칭)을 설립해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토론하고 학습하는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민관협동대학은 현재 태안주민들의 수요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자체 담당공무원들과 함께 토론하고 민주적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구성하고 지역의 대학교 수 및 지역전문가 등이 관련 분야에 대한 강의를 통하여 감정에 치우친 요구에서 벗어나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방안 도출을 시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지역공동체가 향후 공공의 선에 대한 바른 인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한 살기 좋은 태안 건설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인 관점에서의 주민지원 대책 보다는 주민들의 삶의 지속성 관점에서 가시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역공동체 복원에 있어서는 경제적 차원의 희망과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의 지역사회자본 형성, 공간적 차원에서의 환경적 우수성을 살리는 방안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태안지역의 지역경제회생 프로젝트의 주요사업내용 및 수산분야 지원요구 사안들은 대규모 사업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히,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들 및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이 너무 빈약하다. 따라서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약자가 소외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태안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지역브랜드의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원동력을 삼아야 할 것이다. 지역브랜드의 육성은 자체의 노력 뿐 아니라 지역의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는 동시에 현 세대의 주민들은 어느 정도의 피해를 감수할 수 있는 인내와 용기가 필요하다. 즉, 이는 미래 세대에 희망을 주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지역공동체 속에서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할 사안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역공동체가 논의해야 할 주제와 목적 등은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의견수렴, 그리고 모임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동의 목적은 공동체 복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셋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지역공동체가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개발을 선호하는 입장에서는 주민의 생존이나 개발가치 등의 그럴듯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입장에서는 지

1) 현재 한서대학교에서는 치위생학과, 작업치료학과, 아동미술학과, 물리치료학과, 피부미용학과 등이 현장실습 차원에서 지역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예산의 부족 및 지원체계 미흡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것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속가능하고 항구적인 태안의 발전을 위한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지역공동체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맨손 어민들에 대한 대안적 소득창출방안이 함께 고민되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자율적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델을 정립하고 이를 태안 지역의 공동체들이 스스로 수용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율적 지역공동체는 지역주민의 합리적 요구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자체의 행정적 지원, 지자체 의회의 입법지원, 시민사회의 참여, 그리고 지역언론이 연계되어 거버넌스 외부 축을 구성하고 지역공동체는 민주적인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이 평등하게 도출되어 토론되어 질 수 있는 투명성과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림 3> 자율적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델



출처 : O.P.Dwivedi and S.S.Mishra(2005) 수정보완.

태안지역의 지역공동체의 복원과 재형성은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약자인 주민들이 삶의 질을 회복하여 사람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 공동체의 복원은 그 지역의 자연조건과 지리적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외부적 충격으로 인해 나타난 주민들의 현재 상황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태안은 천혜의 자연조건과 지리적 조건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들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지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겸훈. (2009).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피해지역의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 *한국환경사회학회*, 국가위기관리연구소 태안종합학술대회 발표집.
- 김교현 외. (2009). 재난이 태안주민들의 심리적 건강에 미친 영향. *한국환경사회학회*, 국가위기관리연구소 태안종합학술대회 발표집.
- 김교현 외. (2007).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가 태안 주민들의 심리적 건강에 미친 영향. 「ECO」, 12(1).
- 김남선 외. (2000). 지역공동체와 사회자본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Journal of Korean-International Society of Community Development*, .10(2).
- 박재목. (2009).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복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연구. *한국환경사회학회*, 국가위기관리연구소 태안종합학술대회 발표집.
- 변주훈. (2009). 재난으로 인한 생태계 혼란과 공동체 위기. *한국환경사회학회*, 국가위기관리연구소 태안종합학술대회 발표집.
- 소진광. (2004). 사회적 자본 형성을 통한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의 연계화 방안. 「지방행정연구」, 18(2).
- 유정. (2009). 기름유출 피해자들의 외상경험과 심리적 충격에 대한 조사. *한국환경사회학회*, 국가위기관리연구소 태안종합학술대회 발표집.
- 윤순진 외. (2009).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방제종료시점의 사회의 의의. *한국환경사회학회*, 국가위기관리연구소 태안종합학술대회 발표집.
- 이시재. (2009).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사회적 재난 연구. *한국환경사회학회*, 국가위기관리연구소 태안종합학술대회 발표집.
- 이종국. (2005). 일본의 지방정부와 지역공동체. 「담론 201」, 8(4).
- 이평주. (2009).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태안지역 생태계 피해 및 복원과 향후과제. *한국환경사회학회*, 국가위기관리연구소 태안종합학술대회 발표집.
- 최병두. (2006).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한 지역공동체 복원 방안. *한국지리학회*. 「지리학연구」, 40(4).
- 홍덕화. (2009).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한 사회갈등. *한국환경사회학회*, 국가위기관리연구소 태안종합학술대회 발표집.
- Hall, P. (2000). Creative Cities and Economic Development. *Urban Studies*, 37(4).
- Scott, A. J.. (2006). New Urbanism, Christensen & D. Leinson(eds.), *Encyclopedia of Community*. Sage Publication, New York.

접수일(2009년 10월 11일)

수정일자(2009년 11월 16일)

게재확정일(2009년 12월 1일)